

“탐방로 편해졌지만...개발보다 생태 보전 힘써야”



재난안전 상황실 구축



탐방객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탐방로 정비

국립공원 지정 3년...무등산 무엇이 달라졌나

인력 2배 증가...사유지 매입 등 예산 110억대 경증 깃대종 수달 등 멸종위기 생물 19종 보호·복원 사업 군부대·상가 이전 박차...방송탑 이전도 핵심 과제로

무등산국립공원이 지난 4일 국립공원 지정 3주년을 맞았다. 1972년 도립공원 지정 후 41년이 지난 2013년 3월 우리나라의 21번째 국립공원이 된 무등산. 도립공원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관리주체 바뀌고 공원면적·관리인원 증가=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원 면적 증가와 관리 주체 변화였다. 공원 면적은 도립공원에 30.23km²이던 것이 2.5배 늘어나 75.425km²로 확대됐다. 무등산 자연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였다.

관리도 도립공원 시절 1개 사무소(광주시)에서 국립공원 지정 후 2개 사무소(국립

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광주·전남)로 강화됐다. 관리인원도 47명에서 114명으로 대폭 늘었고, 예산 규모도 3억~20여억원에서 110억원 대로 증가했다. 국립공원 지정 후 투입된 예산의 상당부분이 공원 내 사유지 매입에 쓰이지만 이 또한 무등산을 국유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공원 관리의 기초 자료가 되는 탐방객 숫자 파악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화됐다. 정상부를 비롯한 27곳에 설치된 자동화 계수시스템으로 집계된 무등산 탐방객 수는 지난 2013년 397만명, 2014년 281만 8000명, 2015년 360만9000명이다. 도립공원 시절 광주시가 파악한 2010년 679만 8000명, 2011년 726만6000명, 2012년 886



의재길 정비공사 전



정비 후

만1000명과는 확연한 차이다.

◇생태계 가치 재발견과 복원 사업 '시동'=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후 23개 분야에 걸쳐 자연자원 종합 조사를 한 결과, 국립공원 지정 전에 비해 60% 늘어난 3691종의 생물자원이 확인됐다.

멸종위기종은 10종에서 19종으로, 천연기념물은 4종에서 11종으로, 전체 생물종은 2296종에서 3691종으로 각각 확인됐다. 공단은 보호 가치가 높은 왕다람쥐고리, 석곡의 서식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희귀식물 32종은 무등산 특정 식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무등산 깃대종인 수달의 서식 환경보호와 복원을 위한 관리방안도 마련됐다. 공단은 서식지 실태조사를 통해 무등산 8개

하천에서 수달 서식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수달이 광주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복원할 예정이다.

50년간 출입이 통제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사업이 시작된 것도, 원효사 상가시설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장불재, 중봉, 북봉 등에 우뚝 솟은 방송·통신탑 이전이 복원 과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동전의 양면...탐방객 안전과 편의 제공=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무등산 자연자원을 보전하는 것과 함께 강화된 것이 이 용객(탐방객) 안전성 확보와 편의 제공 분

이다.

지난 3년간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전 구간 탐방로(63개 노선 165km)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훼손 등급에 따라 총 23개 노선 34.8km를 정비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자격증 및 구조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 전담자가 곳곳에 배치되고 있으며 24시간 재난 상황에 대비하려고 재난안전대책 상황실도 구축, 운영 중이다.

실제 매년 380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무등산에서 안전사고는 지난 2013년 48명(골절·상처 39명, 탈진 9명), 2014년 48명(30명, 17명, 사망 1명), 2015년 16명(13명, 3명)으로 감소 추세다.

탐방지원센터 8곳과 공중화장실 7곳이 새롭게 설치되고 이정표 등 종합안내판 758곳도 정비되는 등 공원 기반시설이 확충됐다.

이처럼 국립공원 지정 이후 탐방로 정비, 기반시설 확충 공사가 계속되면서 공단이 무등산 자연자원 보존보다는 이용을 위한 개발에 힘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환경연합, 핵발전 중단 촉구

11일 전원전사하고 5년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발생 5주기를 앞두고 지난 7일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회견에서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문에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368명에 이르고 아직도 피난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의 숫자가 1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후쿠시마 참사는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보여줬다”면서 “사고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의 공중물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이끌어내고 탈핵의 길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2011년 21기였던 핵발전소를 25기까지 늘렸다.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핵발전을 멈추고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게 최선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복수초 피면 이른 봄...‘생물 시계’로 계절 가늠해요

국립공원공단 ‘계절 알리미 생물’

‘무등산에 복수초가 피면 초봄, 호랑나비가 보이거나 빠꾸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본격적인 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잘 나타내주는 ‘계절 알리미 생물 50종(種)’을 선정, 최근 발표했다.

탐방객들은 무등산을 비롯한 전국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이 생물종을 지표 삼아 계절과 기후 변화를 쉽게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식물 28종, 곤충 10종, 양서류 4종, 조류 8종으로 구성된 이 ‘지표 생물’들은 각각

초봄(13종)과 봄(10종), 초여름(8종), 여름(8종), 초가을(6종), 가을(5종) 등 6개의 시기로 나눠 선정됐다.

초봄을 알리는 생물종으로는 복수초와 변산바람꽃, 히어리, 애호랑나비 등이 뽑혔다. 눈이 채 녹기도 전인 이른 봄에 개화하는 복수초는 지난달 23일 무등산국립공원에서 올해 처음 개화된 모습이 관찰된 이후 변산반도(2월 25일), 지리산(2월 29일) 등에서 관측됐다고 공단은 전했다. 변산바람꽃은 지난 2일 경남 통영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올해 처음 개화했다.

본격적인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봄 알리미’로는 산벚나무, 호랑나비, 도롱

뇽, 두꺼비, 빠꾸기, 할미꽃 등이 선정됐다. 꼬꼬리와 소쩍새, 물레나물은 초여름, 참매미와 두견이, 솔부엉이, 산수국은 여름의 전령으로 각각 뽑혔다. 초가을을 알려주는 생물종으로는 썩부쟁이, 고추잠자리, 귀뚜라미가, 완연한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는 생물종으로는 여새, 늦반딧불이, 구절초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계절 알리미 생물종’은 우선 계절별 발생과 개화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 뒤 기후변화 생물 지표종과 모니터링 대상종 여부, 분포 지역 특성, 대중성 등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김형호기자 khh@



복수초



참매미

‘자연나들이’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상반기 자연나들이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생(선착순 35명)이며, 모집 기한은 4월 8일까지다. 참가비는 나들이 1회 3만원(회원 2만 5000원), 7월 캠프 7만원(회원 6만 원).

가람 길라잡이라는 이름의 자연나들이 프로그램은 4월 16일, 5월 14일, 6월 18일, 7월 9~10일 등 총 4차례 준비됐다.

4월 곤충(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나?), 담양 용흥사 계곡, 함순아(동강대 교수), 김희련(자연영 아트) ▲5월 식물(들꽃 배는 어디까지 흘러갈까?), 함평천 일대, 조어진(환경부 환경교육 강사) ▲6월 어류(피라미 혼인 색은 왜 파랄까?), 심재환(서영대 교수), 김홍숙(황룡강 지킴이 사무국장) ▲7월 하천과 먹을거리(다슬기가 밥상으로 올라오기까지), 광양 금천 계곡과 피아골(강사 미정), 문의는 062-514-2470.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구례, 지리산 온천지구내 알프스모텔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음식점 / 숙박시설, 2~4층 - 숙박시설
- 경매로 취득,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요양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매매 - 10억 3천만원
- 용자 - 6억 3천만원 포함
- 법인체 인수가능 (이전비 없음)

투자 가치! 좋습니다
리모델링후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